대림 제4주일(2019년 12월 22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 인생에서 인간 관계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소매 끝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진은 1938년 당시 하버드대 2학년 학생들과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 중에서 724명을 선정했고, 1938년부터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 상태를 연구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는 무려 78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선정된 724명의 조사 대상들 중에는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었고, 의사, 벽돌공, 교사, 회사원, 예술가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가 된 사람도 있었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대 4번째 연구 책임자였던 하버드 의과 대학의 로버트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724명의 78년 간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행복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복은 부나 명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 고집 세고 주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면서 인간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년기 이후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었고, 뇌기능도 일찍 저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 친구, 혹은 공동체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등과 마찰과 불편한 인간 관계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질병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살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직접 발견하였습니다.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박사는 78년 간의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중요한 한 마디를 전합니다.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동료,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가 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이 두 화가 중에 누가 더 뛰어난 화가였는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고, 누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했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좌절을 거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도 결별을 하고, 정신 병자 취급도 당하다, 결국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하죠.

반면, 피카소는 살아 생전에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고, 부유하고 평화롭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화가의 인생을 이렇게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심리 학자들은 ‘인간 관계의 연결망’을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고흐는 죽고나서, 피카소를 능가할 만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고흐가 남겨 놓은 작품들은 피카소의 그림들 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인간 관계의 연결망이 좋지 않았던 고흐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인간 관계의 연결망이 좋았던 피카소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꾸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몸소 직접 보여주셨죠. 이것이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말처럼,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데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나와 잘 안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많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이익만 먼저 챙기기 보다는, 상대방의 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시에는 그 여인을 정결치 못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파혼하고 내쳤습니다. 그러면,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혼녀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선익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았던 요셉의 ‘의로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을 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엄청난 갈등과 오해의 순간에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의롭고 충실한 요셉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미움과 불신과 오해, 편견 등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인간 세상에 참된 행복과 평화가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바로 그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웅장한 교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들이 득실 거리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들판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아 안으셨던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조용히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시골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세상에서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우던 가난하고 성실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잘난 척만하고, 고집만 부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은 실천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또 겸손할 줄 모르고, 순종할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 안에는 절대로 하느님께서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세지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다가오는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 성탄을 준비하십니까?

성탄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얼마나 주변 장식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마음 가짐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안에, 그리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그 의로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평화와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